
	보 도 설 명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3.30.(화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이 지 형 사무관 (02-2100-2836) 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

제 목 : 정부는 청년층·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.[조선일보, 서울신문 3.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

1. 기사 내용

- ☐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3.30일자 기사에서,
- “與 정책위의장까지 “부동산 대출규제 완화” … 정부에 반기”, “가계빚 1,700조인데 대출 푼다? … 주거 사다리 놓고 당정 엇박자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

- ☐ 정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‘가계부채 관리방안’을 4월중 마련·발표할 계획이며,
- 동 방안에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,
 - 청년층·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.

- 3.29일(월)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“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-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되며, 그 동안 정부가 밝혀온 정책검토 방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.
-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전반적인 대출규제 완화로 잘못 이해하고 “부동산 대출규제 완화”, “LTV·DSR 완화 방침에 시장 혼란”, “당정 엇박자”라고 보도한 바,
-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도록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지착할 자유이용허락</p>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</p>	<p>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</p>	 <p>1339 콜센터</p>
---	---	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